

# LCD 시장 차이완 효과 경감되나?

## Display Search, 2010년 수요증가 기대감에 ... 패널가격 상승 반전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은 2010년 디스플레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타이완 기업들의 공격적인 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Display Search에 따르면, 최근 2주간 LCD 패널 가격은 전반적인 보합세 속에 IT제품을 중심으로 일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7인치에서 22인치까지 모니터용 LCD는 패널당 1-2달러씩 올랐고 주력제품인 42인치 패널을 비롯한 TV용 제품도 9월 이후 계속된 하락세를 마감하고 보합세를 보였다.

계절적 비수기인 겨울로 접어들었고 타이완기업들이 2/4분기 이후 공격적으로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공급과잉이 초래돼 3/4분기 이후 LCD 패널은 전 품목에 걸쳐 가격이 내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연말을 기점으로 2010년 디스플레이 제품 수요가 예초 예상을 웃돌 거라는 전망이 잇달아 나오면서 가격 하락세는 반전됐다. 3/4분기 이후 세계적으로 수요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3/4분기 LCD TV 출하량은 전기대비 24% 가량 늘어나면서 3/4분기에 전년대비 역성장했던 전체 TV 시장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또 미국 LCD TV 2위인 Vizio의 추수감사절 직전 주말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100% 증가한 8만6000대를 기록했고,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 국경절 등의 효과로 소비 회복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Display Search는 2009년 LCD TV 수요 전망치를 1억3000만대에서 최근 1억4000만대로 늘려 잡기도 했다.

또 2009년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시작으로 중국 춘절, 미국 슈퍼볼 그리고 남아공 월드컵까지 연이은 특수에 패널 품귀 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 완제품 제조기업들이 앞다투어 LCD 패널을 사들이는 것도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22>